1986년 김세진 · 이재호 열사 분신사건

장유식

"반전반핵 양키고홈",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198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신림사거리… 김세진 · 이재호 열사의 분신투쟁을 전후한 서울대의 전방입소 거부투쟁에 대해 진술하기에 앞서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시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두 열사의 투쟁은 흔히 '분신자살'로 알려져 있다.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의 분신자살이라고 해서 세간의 엉뚱한 관심을 끌었고, 반면 생명경시풍조니 교육제도의 잘못이니, 고생을 모르고 자라 나약하다느니 하는 무지막지한 마타도어가 판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열사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었다. 척박한 조국의 현실과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으로 인해 두 열사는 사랑하는 조국과 부모형제, 친구들을 뒤로 한 채 죽음으로 내몰렸다. 두 열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미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투쟁했기에 삶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비록 두 열사는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투쟁과정에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결사決死의 의

지로 사랑했고, 투쟁했고, 쓰러져 산화했다. 그 뜨거운 4월의 봄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얻으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국을 다시 보자

두 열사의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한국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미국' 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우방으로 인식되어 왔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 동조하는, 즉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학원가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면서, 반미감정은 확산일로를 겪게 된다. 나아가 주한미군과 핵전쟁 위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일반화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소 전진기지가 필요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국제사회의 일반원리가 반공이데올로기와 숭미사대주의에 찔어 있던 당시의 한국사회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핵전쟁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었다.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이 실제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감 있게 제기되었다. 이 점은 당시 미국의 1983년 국방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소련이 중동산유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석유자원지대를 수중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한다." (동아일보, 1983. 2. 15. 보도)

이처럼 높아가는 핵전쟁과 민족공멸의 위기 앞에 애국적 열혈 청년학생들의 분연한 궐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시의 정치상

황은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한 후 수 년간 폭압정치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에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속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때이기도 했다.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의 발족

1986년에 들어서면서 반미투쟁의 선두에 나선 것은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였다. 그 위원장이 이재호 열사이다. 1986년 3월 18일 11시경 서울대 IMC 회관 앞에서 이재호 열사는 '반전반핵 평화옹호 투쟁위원회'(이하 반전반핵투위)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취임한다. 당시 학내에서조차 시위가 자유롭지 않았고(상주 경찰인력이 철수한 것은 1984년),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는 학교측의 동의나 요청 없이도 바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족식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되었고, 긴장감 속에서 속전속결로 집행되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은 쏟아지는 빗발 속에서 이재호 열사의 선창에 따라 "반전반핵 양키고홈", "민족생존 위협하는 핵기지를 철수하라", "친미독재 타도하고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전반핵이 서구의 평화운동에서는 생명운동,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이날의 구호는 '평화옹호'의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문제의 본질인 미국문제에 직접 접근하였다. 이날의 투쟁은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날짜도 3월 18일로 정해졌으며,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 이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던 학생운동 내에서의 반미투쟁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때만 해도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우리는 반미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학생운동권이 이제는 반미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게 된 것이며, 이전까지 주로 반파쇼, 반독재 투쟁에 머물러 있던 학생운동이 민족모순을 온몸으로 껴안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세진 · 이재호 열사 추모사업

반미투쟁의 확산

반전반핵투위의 발족은 이후 확산되어 가는 반미운동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청계천 4가 미공병대 앞에서의 성조기 소각투쟁, 영등포 로타리에서의 반미투쟁, 미국의 리비아 폭격 규탄투쟁, 남영동 미8군 USO 타격투쟁 등 일련의 반미투쟁이 이어진다. 4월 4일에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이하 자민투)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자민투 산하 투쟁위원회들이 속속 구성되어 반미투쟁을 위한 조직정비가 마무리된다. 반전반핵투위는 자민투 산하 투쟁위원회로 소속된 상태에서 이재호 열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투쟁위원회와는 별도로 학생회 차원에서의 준비도 계속되었는데, 각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선거를 통한 의식화와 조직화가 그것이다. 학생회장 선거공간을 이용해 반미운동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핵전쟁 위기와 민족공멸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한편, 1, 2학년을 중심

으로 한 조직화에도 힘썼다. 김세진 열사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3월 말 자연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연대 학생회장에 선출되었다. 김세진 열사는 자연대 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총학생회가 반미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서,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학도호국단으로 전락한 후 다시 학생회로 부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적 의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반미운동의 대중화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반미투쟁의 대중화를 위하여

선도그룹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강인한 투쟁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중들 내부에서도 반미운동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학생 대중의 일반적 인식은 전두환 정권이 광주의 피무덤 위에 세워진 정통성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지만, 미국문제에 이르게 되면 의견이 분분해지곤 했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나 핵기지의 위험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등에 대해서도 관념적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천의 한계가 쉽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운동진영 내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견해, 개헌공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자민투 계열과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계열로 분열하였고, 이 분열로 인해 자민투나 민민투 모두 대중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이것이 투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울대 학생운동이 혼란을 겪고 있던 1986년 4월 초, 성균관대학교 85학번 2학년들이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방입소제도는 문무대 입소교육(1학년 때 시행, 현재는 모두 폐지)과 함께 대학생들을 군사조직화하는 대표적 억압장치로 지목받아 왔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자민투는 성

균관대 2학년이 벌이는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방입소훈련은 미제국주의의 대학생들에 대한 용병교육이며 식민지노예교육"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와 자민투는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예정된 서울대 85학번들의 입소훈련을 전면거부하는 투쟁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입소거부투쟁을 통해 미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본질과 실상을 폭로하고, 대학생들에게 만연된 숭미사대주의를 반미민족자주의식으로 전환해 내는 한편, 많은 학생 대중의 참여를 유발하여 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투쟁의 목적이었다. 4월 10일을 전후하여 입소거부투쟁이 최종 결의되고 투쟁의 주체로 총학생회와 자민투가 결합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정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4월 16일, 총학생회장(김지용, 국제경제학과)을 위원장으로, 총학생회 기획부장과 반전반핵투위장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방입소훈련 전면거부 및 한반도 미제군사기지화 결사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양키들은 한민족을 자신의 용병으로 전락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용병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중략) 전방입소교육을 냉철한 지성과 조국애를 바탕으로 전면거부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특별위원회가 전방입소교육을 미제국주의의 용병교육이라 규정한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전락한 현실 인식에 근거했다. 한국군에 대한 군통수권과 모든 군사훈련, 병력 배치와 이동, 군장비 이동 등에 관련된 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었다. 1994년 평시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긴 했으나, 1986년 당시만 해도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군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미국인들의 한국군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

이다"(풀브라이트 의원, 미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투자를 지켜주는 보초병으로서의 군대이며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주는 군대이다" (로버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군은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미국의 고용군대이며 또한 한국은 아시아 진출의 방패에 불과하다." (미국의 유력지 '군사평론' 중에서)

이같은 현실에서 대학생에게 전방입소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용병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며, 식민지 노예로 길들여지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 인식과 투쟁목적하에 입소거부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때 이재호 열사는 이미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거망을 피해 자민투 위원장들과의 모임, 특별위원회 모임을 중심으로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갔고, 김세진 열사 역시 수배상태에서 단대 학생회장 모임의 대표로서 총학생회 차원의 구체적인 준비와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중앙도서관 농성계획 불발

특별위원회는 전방입소훈련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모든 힘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20여 명씩 조를 이루어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 구내를 돌면서 선전활동을 하고, 「민족의 활화산」이라는 소책자도 만들어 학내와 타 대학교에 배포하였다. 입소대상자인 85학번 2학년들은 학내 곳곳에서 전방입소훈련과 미국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과별·단과대별로 입소거부를 결의하였다. 85학번들은 스스로 대표를 뽑고 입소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 22일에는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85학번 전체 입소거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굳은 의지를 다지고 혈서로 투쟁을 맹세하기도 했다. 이렇게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85학번 학생 대중들의 결의는 매우 높아졌다.

한편, 성균관대학교의 4월 22일~26일까지의 입소거부 자진퇴소자 12명 중 10명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농성투쟁이 성균관대에서 벌어졌고, 이는 서울대의 전방입소 거부투쟁에도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별위원회는 달아오르는 대중적 의지를 모아 전방입소거부를 선언한 뒤, 입소훈련이 예정되었던 4월 28일부터 4일간 중앙도서관에서 농성하며 '민족대학'을 선포하고 강연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서울대학교 당국은 4월 26일 오전부터 28일까지 중앙도서관 휴관을 전격 결정하게 되는데, 이로써 도서관농성은 불발되고 특별위원회는 입소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내몰렸다.

연건캠퍼스 농성계획 실패

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농성장소를 연건캠퍼스(의과대학교) 도서관으로 정하였다. 김세진 열사가 농성에 필요한 사전답사를 책임졌다. 김 열사는 26일 오전과 오후를 이용하여 연건캠퍼스 진입로, 도서관 내의 농성장소, 진입일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특별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는 26일 밤,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D-day는 27일 오후 1시. 농성현장을 지휘할 지도부로는 김세진 열사, 이재호 열사 등이 결정되었다. 이 계획은 26일 밤 4, 5명씩 조단위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던 85학번들에게 전달되었다. 27일 아침 두 열사는 연건캠퍼스에 미리 들어가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정오가 되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어떤 경로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도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사전에 정보가 경찰에 입수되었고 캠퍼스 주변에는 삼엄한 경계망이 둘러쳐졌다. 농성은 무산되고, 진입을 시도하던 학생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27일 저녁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격론이 벌어졌다. 특별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농성현장을 직접 지도하고 투쟁을 책임

져야 했던 김세진 · 이재호 열사의 경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급선무는 불과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입소 당일의 투쟁장소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입소 집결지인 망우리와 서울대 관악캠퍼스, 신림사거리 등이 거론되었다. 이때 김세진 열사는 신림사거리 연좌농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나에게 맡겨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굳은 결의와 의지를 내보였다. 특별위원회는 결국 28일 아침 9시, 신림사거리 연좌농성을 결정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두 열사가 건물 옥상에서, 인문대 학생회장이 연좌농성을 주도하기로 하고, 각자 관악캠퍼스 집회와 사후 대책에 대한 역할 분담을 끝낸 후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신림사거리 연좌농성과 두 열사의 산화

28일 아침 9시, 마지막까지 연락이 가능했던 4백여 명의 입소대상 85학번들이 신림사거리 가야쇼핑센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맞은편 3층 건물 옥상에는 이재호 · 김세진 두 열사가 핸드마이크를 손에 쥐고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주도하였다.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두 열사가 옥상에서 선창하고, 4백여 학생들은 도로에 연좌한 채 서로의 어깨를 걸고 구호를 따라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출동하였다. 그들은 연좌한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며 연행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두 열사가 있는 건물로 뛰어 올라갔다. 두 열사는 미리 준비한 시너를 온몸에 끼얹으며 외쳤다. "시위대에 덤벼들지 말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분신할 것이다." 그러나 두 열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 옥상으로 쳐들어왔다. 결국 …

굳은 각오로 투쟁을 주도하고 있던 두 열사는 자신들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당겼다. 불길은 거세게 치솟아 올랐고,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두 열사의 분신투쟁이 눈앞에 벌어졌다. 김세진 열사는 순간적으로 뒤로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나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도 두 손을 불끈 쥐고 계속 구호

를 외쳤다. 초인적 투쟁자세로 임하던 두 열사는 얼마 후 이재호 열사가 고통에 못 이겨 옥상에서 떨어져 내리고, 김세진 열사도 기진하여 옥상에 쓰러지고 만다. 연좌하여 투쟁하던 4백여 학생들의 눈에서 두 열사는 사라지고 검은 연기만 치솟아 올랐다. 85학번 학생들은 연행되어 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재호 형', '세진이 형'을 부르면서 열사들이 외쳤던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이렇게 두 열사는 1986년 4월 28일 오전 9시 반경 신림동 사거리, 목숨을 건 반미투쟁의 현장에서 불꽃이 되어 산화하셨다.

나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분신으로 인해 깊은 화상을 입은(이재호 열사는 80%, 김세진 열사는 60%) 두 열사는 몇몇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병원을 완전히 통제하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제한하였다. 비보를 전해 들은 부모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두 열사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식을 회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두 열사는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죽는 건가요? 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라며 의연한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다. 평소 효심이 깊었던 두 열사는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렇게 굳은 의지와 헌신성, 동지에 대한 책임감으로 반미투쟁의 선봉에 섰던 두 열사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김세진 열사가 5월 3일, 이재호 열사는 모친의 피부이식수술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김세진 열사는 판교공원묘지에, 이재호 열사는 광주 망월동(성산묘지에서 이장)에 고이 묻히셨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씨앗이 되어

두 열사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당시 제기되었던 '반전반핵' 슬로건은 그 후 들불처럼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

고,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모든 초점은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에 맞추어졌으며, 친미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과 6월 민중항쟁을 통해 폭발하였다. 부끄러운 것은 당시의 슬로건이 2004년 현재에도 아직 유효하다는 점이다. 전방입소훈련은 없어졌지만, 평화협정도 불가침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문제는 북한핵문제로 약간 변질되긴 했지만 민족의 생존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며, 한미 간의 불평등한 SOFA 협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두 열사의 투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중적 투쟁방식과 지도부의 헌신성이다. 그 이전에도 물론 반미투쟁은 있었다. 그러나 해방전후와 한국전쟁시기를 제외하면 대중적 반미투쟁은 최초가 아닌가 싶다. 전방입소훈련이라는 대중적 이슈를 중심으로 학생 대중을 조직하고 설득하였으며, '미국' 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대중적 투쟁을 선도하는 지도부의 헌신성은 더욱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이재호 · 김세진 열사의 헌신성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던진 그것이었다. 중앙도서관과 연건캠퍼스 농성이 무산된 후, 모든 투쟁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85학번 후배들의 연좌농성대오를 수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저항했고 또 그대로 실천했다. 그들은 목숨을 스스로 버릴 만큼 무모하거나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투쟁대오를 사수하고, 후배,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강인한 의지와 책임감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아마 김세진 열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8일 아침, 신림사거리로 떠나기 직전 중앙대 근처에 있었던 한 자취방에서 "빵(교도소)에 가면 먼저 청소해 두고 기다릴 테니 나중에 따라오라"는 농담을 했다. 이재호 열사는 당면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중요성' 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두 열사가 그렇게 먼저 가셨다.

두 열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결사決死의 의지로 이야

기하고 싶었던 것은 민족자주와 조국의 통일이었다. 전쟁에 반대하고, 핵무기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두 청년의 외침은 오늘 광화문 촛불시위로 되살아나고, 모두의 가슴에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

장유식 jang@pspd.org |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연구소, 반핵평화운동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준) 등에서 활동함. 분신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두 열사와 함께 활동했으며, 이 사건으로 1987년 3월 구속되어 수감됨.